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아동의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분류 및 전이 영향*

성정혜¹⁾ 허무녕²⁾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인성과 중학교 1학년 문제행동 간의 전이 양상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13~14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491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 및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인성 잠재집단은 3개로 분류되었으며, 중학교 1학년 문제행동의 잠재집단은 4개로 분류되었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인성이 낮은 집단에 속할수록 중학교 1학년 시기 문제행동 고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잠재집단 간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또래애착은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는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 확률을 높였으며, 학업스트레스는 인성 저수준 집단에 내재화 우세 및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생의 인성과 중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개입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인성, 문제행동, 또래애착, 학업스트레스, 잠재전이분석

I. 서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 등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량이며 미래 인재가 가져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인성 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량이 급증하고 상호간의 연결성이 커지는 미래 사회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더불

* 본 논문은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1) 경북대학교 데이터융합연구원 연구원

2)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시간강사

어 살아가는 인성이 필수 덕목이다(최연우, 2022). 인성이란 각 개인이 보이는 고유한 행동 양식으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고, 정서, 행동 등 개인의 독특하고 일관된 적응 방식을 의미한다(이경희, 2015).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식의 전달과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인성교육은 등한시하고 단회기로 진행되는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2020)에서 실시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니터단의 설문조사 결과 미래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89.14%가 응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 ‘책임 있는 사회 참여를 위한 시민적 인성’과 ‘타인, 공동체, 자연을 존중·배려하는 도덕적 인성을 겸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인성 발달에 있어 아동기는 중요한 시기인데,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정 이외의 학교라는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학교는 친구, 선·후배, 교사 등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회적 가치와 행동 규범을 경험하고, 관계 형성 기술과 자신, 타인을 이해하며 정서와 행동을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들을 학습해나가게 된다(김지윤·이은진·하승혁 외, 2021). 아동기에 부적절한 인성이 발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감하지 못하고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이를 자신의 재미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최성애·조벽·김슬기, 2020).

아동기 인성을 강조하면서 2013년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을 중요시하였고, 핵심 덕목으로는 정직과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핵심 덕목을 중심으로 현주·임소현·한미영 외(2014)는 아동기 인성을 측정하고자 표준화 도구를 개발하였고, 하위유형으로는 정직·용기, 책임, 자기존중, 배려·소통, 성실, 예의, 지혜, 자기조절, 정의, 시민성을 다루었다. 인성의 구성 요인으로서 정직·용기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더라도 이를 이행하는 슬기로운 정직을 의미하며, 책임은 사회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필수요건인 사회적 책임으로서 협동심과 규칙이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존중은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존중과 성과를 이뤄낼 만한 효능감을 의미하며, 배려·소통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친절성,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성실은 인내력과 끈기, 근면성을 의미한다. 예의는 일상생활에서 갖춰야 할 존중을 나타내는 말투와 몸가짐으로서 효도와 공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혜는 개방성과 안목, 판단 및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감각과 욕구를 도덕적 행동으로 안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조절은 개인의 행동과 감정, 충동에 대한 조절 및 통제와 신중성을 의미하며, 정의는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탐하지 않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시민성은 공동체에 소속된 사회구성원으로서 애국심과 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성은 하나의 단편적 요인이라기보다 개인의 다면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덕목과 역량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인성의 개별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변수중심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인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필요하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사람중심접근으로서 집단 내 동질적 특성을 공유하는 하위집단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통계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위유형의 수를 탐색하고 결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문제행동이 심각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에 대한 예방적 접근으로서 언급되었고, 교육부(2016)에서 '제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 ~ 2020년)'을 발표해 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시민으로서 인성역량 증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만 잘하면 뭐든 괜찮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인성 발달을 방해하며,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이는 자기중심적인 생활과 문제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아동기의 긍정적 인성 발달은 도덕성과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되고, 심리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으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Klimstra와 Akse, Hale(2010)는 청소년기 이전의 인성 및 성격적 특성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Perez와 Jennings, Piquero 외(2016)는 아동기의 높은 공격성과 충동성으로 인한 부정적 인성은 학교 부적응과 물질남용 등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인성과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혼합모형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잠재집단 간 상이한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변화를 추정하는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여(김미림·유예림·황은희 외, 2019) 아동기에 형성된 인성의 특성이 어떠한 문제행동 유형 집단으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행동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오경자·김영아, 2010). 외현화 문제는 통제가 부족한 행동 문제로, 겉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행동 문제이기에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문제'라고 하며 규칙위반, 공격행동이 포함된다. 규칙위반은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문제행동을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격행동은 언어적·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반면, 내재화 문제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과 같이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 문제로,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안으로 삭이는 편이기 때문에 '내면화된 과잉 통제된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내재화 문제에는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등이 해당된다. 불안/우울은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위축은 소극적인 태도로서 주변에 대한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신체증상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어지럽다는 등의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가족부(2023)의 청소년 통계에서 중학생의 우울감(39.8%)이 전년도에 비해 2.5%p가 증가하였다는 점과 청소년기에 신체화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는 점(van Geelen, Rydelius, & Hagquist, 2015)을 토대로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특성을 고려한 사람 중심적 접근을 통해 아동기의 인성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유형화함으로써 인성과 문제행동의 다양한 조합들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위유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으며(기쁘다, 2021), 인성과 문제행동 간의 유형에 따른 전이 양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신체적 성장과 심리적·사회적 성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시기로, 또래와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게 된다.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고자 하며, 관계 욕구가 부모에서 또래로 그 폭이 확장된다(Perry & Bussey, 1984). 특히, 또래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긍정적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가고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반면, 또래애착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불안감과 고립감이 증가하게 되고(장은애·정현희, 2019),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험을 하거나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문제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배민영(2017)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동안 또래 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김선아(2013)는 청소년기의 긍정적 또래애착의 형성은 성숙한 사회적 기술과 심리사회적 수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학업 환경은 아동기와 달리 수업방식과 과도한 학습에 대한 요구, 성적에 대한 압박감, 입시 경쟁 등으로 인해 환경적 변화의 정도를 크게 느끼게 되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하미영·정현희, 2021). 여성가족부(2022)에서 실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기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46.5%)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경쟁심이 높아지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열등감과 불안, 죄책감, 적대감 등을 느끼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외현적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강정애·임성욱, 2018). 이와 관련하여 김민주와 이동귀(2018)의 연구에서는 높은 학업 스트레스가 사회적 행동을 좌절시키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여 공격적인 행동이 유발된다고 하였으며, 원경림과 이희중(201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 및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이는 자살사고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최근 코로나 19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학업과 또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리적 갈등이나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또래애착과 학업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인성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문제행동에 따른 각각의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잠재집단 간 전이 양상과 전이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애착과 학업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1학년 시기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집단은 각각 몇 개로 분류되며, 각 잠재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1학년 시기 문제행동 잠재집단 간의 전이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간 전이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자료를 사용하였다. PSKC는 층화다단계 표출법을 적용하여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과 부모 및 학교의 특성 등에 관해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학년과 1학년 시기인 13~14차년도(2020~2021년) 총 2개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는데, 13차년도 자료의 경우 문항내용과 조사방법이 일반조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을 조사한 심층조사로 603명의 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14차년도 조사는 1328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조사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 중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를 보인 대상을 제외한 아동 49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아 253명(51.5%), 여아 238명(48.5%)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가. 인성

초등학교 6학년의 인성은 현주·임소현·한미영 외(2014)이 개발한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인성검사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된 PSKC 1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한국 사회나 문화에 적합한 인성검사로서 인성의 개념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자기존중과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등 10개 하위요인,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주·임소현·한미영 외(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973이었으며, 본 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에 아동이 스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T*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문제행동

중학교 1학년 아동의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부모용(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6-18)를 사용하여 측정된 PSKC의 1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평가하며, 총 1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8개의 하위척도와 한 개의 기타척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불안/우울과 위축/우울, 신체증상의 32문항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의 35개 문항, 총 67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런다'(2점)의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T*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해당 척도에서는 60점 이상일 경우 준임상 범위, 64점 이상일 경우 치료가 필요한 임상 범위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당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709~.906 사이로 나타났다.

다. 또래애착

아동의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hberg(1987)가 개발한 애착척도를 PSKC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통해 측정된 PSKC의 1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3개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로 구분되어 있고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애착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794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에 아동이 스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포래에착의 정도에 대해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학업스트레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활용한 학업스트레스척도를 PSKC연구원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된 PSKC의 1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그런적 없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에 아동이 스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당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81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평균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Mplus 8.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과 주요변인의 특성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1학년 시기 문제행동 각각에 대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이 몇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2개부터 6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적절한 모형을 판단하였는데, 최종모형의 선정을 위해 정보지수와 분류의질, 모형비교지수, 최소집단의 표본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정보지수는 AIC와 BIC, SABIC를 활용하였으며, 그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Akaike, 1974; Schwarz, 1978; Sclove, 1987). 분류의 질을 확인하는 데는 Entropy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Entropy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잠재집단 분류의 질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Geiser, 2011;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모형비교지수는 LMR-LRT와 BLRT를 통해 잠재집단이 k 개인 모형과 $k-1$ 개인 모형을 비교하여 p 값이 유의하면 잠재집단이 k 개인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k-1$ 개인 모형을 선정하였다(Lo, Mendell, & Rubin, 2001; Peel & McLachlan, 2000). 최소집단의 표본 수는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최소집단의 표본 수가 25명 이상이거나 분류율이 1% 이상일 경우만을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Bauer & Curran, 2003; Hill, White, Chung, et al., 2000). 셋째,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인성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문제행동에 대해 잠재집단을 분

류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잠재집단 간 전이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1학년 시기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간 전이에 있어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PSKC 13-14차년도 조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전반적인 분포와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i>M</i>	<i>SD</i>	왜도	첨도	
자기존중	48.94	10.17	-.88	.42	
성실	46.53	9.84	-.19	-.27	
배려·소통	51.94	8.53	-.30	-.24	
사회적 책임	50.65	8.69	-.37	-.52	
인성	예의	48.86	9.54	-.93	1.26
자기조절	49.51	8.59	-.25	-.26	
정직·용기	48.15	8.99	-.06	-.31	
지혜	50.60	8.96	-.06	-.49	
정의	52.51	9.01	-.91	.95	
시민성	48.99	9.69	-.57	.13	
문제행동	불안/우울	52.02	4.47	1.76	4.59
위축/우울	52.17	4.53	1.01	5.27	
신체증상	51.80	3.92	1.79	6.88	
규칙위반	52.31	4.14	1.93	3.17	
공격행동	52.00	4.09	1.64	5.23	
또래애착	3.17	.45	-.20	.34	
학업스트레스	2.30	.80	-.30	-.08	

본 연구대상의 인성에 대한 T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10개 하위요인 모두 46.53점에서 52.51점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문제행동의 경우 4개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는 정상군 범위인 T 점수 60점 미만으로 나타났고, 또래애착은 평균 3.17점,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2.30점을 나타내었다.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절댓값이 각각 2와 7보다 작게 나타났기에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0).

2. 잠재프로파일 분류

가. 인성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아동의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인성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2개~6개까지 증가시켜가면서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 모형비교지수, 최소집단의 분류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아동 인성 변인의 잠재집단 분류 기준

	잠재집단 수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6 집단
<i>AIC</i>	33738.280	32934.772	32731.221	32634.591	32562.632
<i>BIC</i>	33868.370	33111.022	32953.636	32903.163	32877.365
<i>SABIC</i>	33769.976	32977.715	32785.415	32700.028	32639.316
<i>Entropy</i>	.893	.915	.881	.892	.860
<i>LMR-LRT</i>	.001	.000	.011	.294	.106
<i>BLRT</i>	.000	.000	.000	.000	.000
최소집단 분류율 (<i>n</i>)	43.6 (214)	21.4 (105)	11.6 (57)	.6 (3)	.6 (3)

주. *LMR-LRT*와 *BLRT*는 *p-value*를 제시함

먼저, 정보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 가지 정보지수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인성에 대한 잠재프로파일의 분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보지수의 감소 폭을 봤을 때, 잠재집단의 수가 3개가 되었을 때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집단의 수가 4개 이상인 모형부터 감소 폭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ntropy* 지수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이 3개인 모형에서

.915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2개인 모형에서 .893, 5개인 모형에서 .892로 나타나 잠재집단이 3개인 모형이 가장 좋은 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비교 지수의 경우 잠재집단의 수가 2개, 3개, 4개인 모형에서 유의한 p 값을 보였으나, 5개 이상인 모형에서부터 $LMR-LRT$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은 최종 모형의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최소집단의 표본 수를 살펴본 결과, 잠재집단의 수가 4개 이하인 모형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5개인 모형과 6개인 모형에서 6명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 모형비교지수, 최소집단의 표본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잠재집단을 3개로 분류한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모형을 최종 선정하였다.

나. 문제행동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중학교 1학년 시기 문제행동의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기 위해 LPA를 실시하였으며, 잠재집단의 수를 2개부터 6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와 *Entropy* 지수, 모형비교지수, 최소집단의 표본 수를 살펴본 것은 <표 3>과 같다.

<표 3> 문제행동 변인의 잠재집단 분류 기준

	잠재집단 수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6 집단
<i>AIC</i>	13070.513	12807.229	12518.178	12303.031	12247.200
<i>BIC</i>	13137.656	12899.621	12635.678	12445.710	12415.377
<i>SABIC</i>	13086.872	12829.793	12546.807	12337.795	12288.418
<i>Entropy</i>	.969	.977	.984	.989	.983
<i>LMR-LRT</i>	.006	.543	.048	.384	.609
<i>BLRT</i>	.000	.549	.000	.000	.000
최소집단 분류율	13.9	3.3	4.3	1.4	2.7
(<i>n</i>)	(68)	(16)	(21)	(7)	(13)

주. *LMR-LRT*와 *BLRT*는 p -value를 제시함

먼저, 정보지수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의 수 증가에 따라 세 가지 정보지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집단의 수가 4개에서 5개로 증가할 때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ntropy* 지수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5개인 모형에서 .989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잠재집단의 수가 4개인 모형에서 .984, 6개인 모형에

서 .983 순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모형비교지수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2개인 모형과 4개인 모형에서만 두 지수의 p 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형은 최종 모형의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최소집단의 표본 수를 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2개인 모형과 4개인 모형에서 각각 68명, 21명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보지수와 *Entropy* 지수, 모형비교지수, 최소집단의 표본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중학교 1학년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4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해당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3. 잠재프로파일의 특징

가. 인성 잠재프로파일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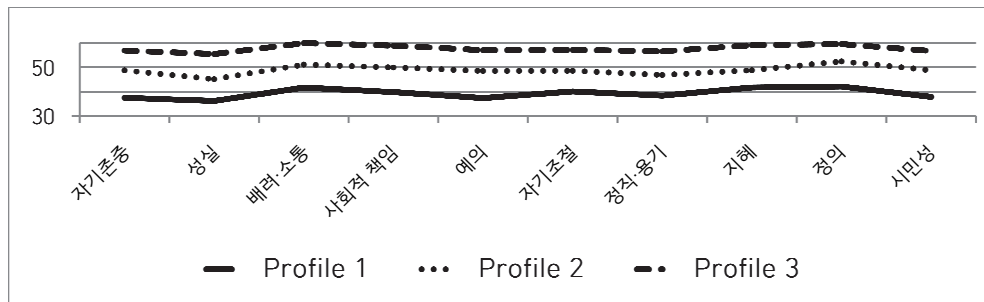
3개로 분류된 아동의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인성 잠재프로파일별로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2]와 같다.

<표 4> 인성 변인의 잠재집단별 특성

	<i>M (SD)</i>		
	Profile 1(저수준)	Profile 2(중수준)	Profile 3(고수준)
자기존중	37.471 (1.162)	48.738 (.707)	56.920 (.413)
성실	36.177 (.863)	45.102 (.581)	55.508 (.665)
배려·소통	41.691 (.870)	51.134 (.484)	59.965 (.496)
사회적 책임	39.820 (.737)	49.926 (.587)	58.955 (.451)
예의	37.362 (1.201)	48.492 (.561)	57.074 (.414)
자기조절	40.088 (.830)	48.551 (.519)	57.201 (.512)
정직·용기	38.359 (.769)	46.836 (.528)	56.592 (.611)
지혜	41.718 (.700)	48.792 (.543)	59.150 (.650)
정의	42.114 (1.007)	52.427 (.649)	59.588 (.351)
시민성	37.840 (1.108)	48.783 (.617)	56.740 (.505)
<i>n</i> (%)	105 (21.4)	227 (46.2)	159 (32.4)

세 잠재집단은 인성의 10개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먼저 Profile 1은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인 105명(21.4%)이 속해 있었으며, 인성의 10가지 하위요인 모두 다른 잠재집단들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인성 저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Profile 2는 가장 많은 수의 인원(227명, 46.2%)이 속해 있으며, 10개 하위요인 점수 모두 Profile 1보다 높고, Profile 3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인성 중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159명(32.4%)이 속해 있는 Profile 3은 다른 잠재집단들에 비해 인성 10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에 Profile 3을 '인성 고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 인성 변인의 잠재집단별 특징

나. 문제행동 잠재프로파일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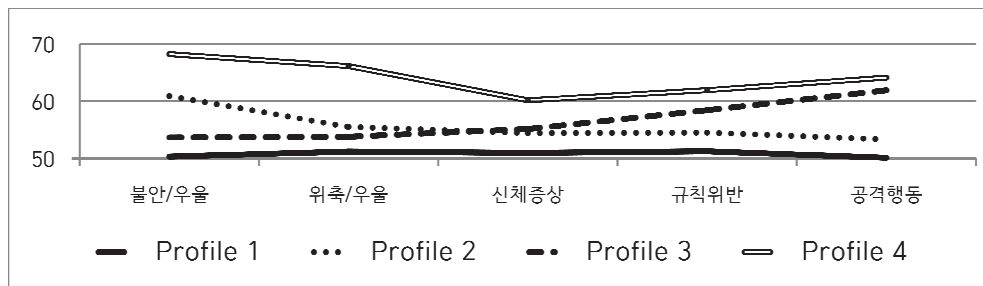
중학교 1학년 시기 문제행동에 대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잠재집단이 나타났고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것은 <표 5>와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3]과 같다.

<표 5> 문제행동 변인의 잠재집단별 특성

	M (SD)			
	Profile 1 (저위험)	Profile 2 (내재화 우세)	Profile 3 (외현화 우세)	Profile 4 (고위험)
불안/우울	50.292 (.059)	59.807 (.582)	53.289 (.572)	66.411 (1.372)
위축/우울	51.085 (.145)	54.962 (.936)	53.403 (.708)	64.531 (1.805)
신체증상	50.881 (.138)	53.991 (.930)	54.624 (.855)	59.155 (1.440)
규칙위반	51.124 (.135)	54.062 (.800)	57.582 (.903)	60.746 (1.212)
공격행동	50.106 (.069)	52.984 (.473)	60.709 (.682)	62.717 (.912)
n (%)	388 (79.0)	42 (8.6)	40 (8.1)	21 (4.3)

먼저, Profile 1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인 388명(79.0%)이 속해 있었으며, 문제행동의 5가지 하위요인 모두 잠재집단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

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Profile 2는 42명(8.6%)이 속해 있었으며, 불안/우울이 59.807점, 위축/우울이 54.962점, 신체증상이 53.991점으로 다른 문제행동 하위요인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40명(8.1%)이 속해 있는 Profile 3의 경우 규칙위반이 57.582점, 공격행동 60.709점으로 다른 하위요인의 점수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Profile 4의 경우 가장 적은 인원인 21명(4.3%)이 속해 있었으며, 문제행동의 5가지 하위요인 모두 다른 잠재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해당집단의 경우 신체증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하위요인의 점수가 모두 6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준임상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문제행동 변인의 잠재집단별 특징

4. 잠재프로파일의 전이양상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1학년 시기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간 전이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인성 잠재집단과 4개의 문제행동 잠재집단이 결합하여 12개의 관계 유형이 나타났으며, 각 유형별 전이 확률은 <표 6>과 같다.

각 유형을 인성 잠재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성 저수준 집단'의 경우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54.3%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18.1%,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15.2%,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12.4%의 순으로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인성 저수준 집단'의 경우 과반수의 아동이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문제행동 집단으로의 전이가 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을 축으로 하여 살펴봤을 때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76.2%로 나타나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의 많은

인원이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의 전이 확률을 살펴보면,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9.3%,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6.6%,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2.2%의 순으로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인성 중수준 집단'의 많은 수가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내재화 우세 집단'을 축으로 살펴봤을 때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되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에 해당하여 '내재화 우세 집단'의 과반수가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성 고수준 집단'의 경우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 91.2%, '내재화 우세 집단' 5.0%, '외현화 우세 집단' 3.8%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는 관찰되지 않아 대부분의 아동이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전이 양상을 살펴봤을 때,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는 절반 정도의 확률로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가 다른 인성 잠재집단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성 고수준 집단'과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성 저수준 집단'의 경우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성 잠재집단에 따라 다른 전이양상을 보였다.

〈표 6〉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간 전이 확률

		중 1 문제행동			
		저위험 (n=388)	내재화 우세 (n=42)	외현화 우세 (n=40)	고위험 (n=21)
초6 인성	저수준 (n=105)	54.3% (14.7%)	12.4% (30.9%)	18.1% (47.5%)	15.2% (76.2%)
	중수준 (n=227)	81.9% (47.9%)	9.3% (50.0%)	6.6% (37.5%)	2.2% (23.8%)
	고수준 (n=159)	91.2% (37.4%)	5.0% (19.1%)	3.8% (15.0%)	-

주. 괄호가 없는 비율 값은 인성 잠재프로파일별 문제행동 프로파일로의 전이확률을 의미하고, 괄호 안의 값은 각 전이집단이 해당 문제행동 프로파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5. 잠재프로파일 전이의 영향요인

초등학교 6학년 인성 잠재집단에서 중학교 1학년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의 전이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안정적인 집단인 '인성 고수준 집단'과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간 전이의 영향요인

인성 저수준 집단						
문제행동	내재화 우세 집단		외현화 우세 집단		고위험 집단	
	<i>B</i> (<i>S.E.</i>)	<i>OR</i>	<i>B</i> (<i>S.E.</i>)	<i>OR</i>	<i>B</i> (<i>S.E.</i>)	<i>OR</i>
또래애착	-.524 (.613)	.592	-.294 (.985)	.745	.301* (.163)	1.169
학업스트레스	.489* (.203)	1.558	.016 (.573)	1.185	1.122* (.417)	3.071
인성 중수준 집단						
문제행동	내재화 우세 집단		외현화 우세 집단		고위험 집단	
	<i>B</i> (<i>S.E.</i>)	<i>OR</i>	<i>B</i> (<i>S.E.</i>)	<i>OR</i>	<i>B</i> (<i>S.E.</i>)	<i>OR</i>
또래애착	-1.279* (.640)	.302	-.811* (.398)	.448	.052 (.553)	1.053
학업스트레스	-.016 (.273)	.910	.016 (.573)	1.016	.042 (.191)	1.043

* $p < .05$

먼저,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의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의 전이에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또래애착은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는 '내재화 우세 집단'과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성 저수준 집단'에 속한 아동의 또래애착이 증가할수록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내재화 우세 집단'과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R값을 살펴보면, '인성 저수준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또래애착이 1점만큼 증가할 때마다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

률이 1.169배 높아졌으며, 학업스트레스가 1점만큼 증가할 때마다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1.158배,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3.071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는 모두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으로 전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의 전이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 보면 또래애착은 '내재화 우세 집단'과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의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잠재집단 간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성 중수준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또래애착이 증가할수록 '내재화 우세 집단'과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R값을 살펴보면, 또래애착이 1점만큼 높아질 때마다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302배가 되며,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448배가 되어 또래애착은 두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의 전이 확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애착의 경우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는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 확률을 높여주는 영향을 미친 반면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는 '내재화 우세 집단'과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의 전이 확률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또래애착이 인성의 잠재집단별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인성과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각각 잠재집단을 살펴보고, 잠재집단 간의 전이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기 인성과 청소년기 문제행동 잠재집단 간의 전이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1학년 시기 문제행동은 여러 유형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인성은 10가지의 하위요인을 축으로 최적의 모형은 3개의 프로파일이 구성되었다. 각각의 잠재집단은 '인성 고수준 집단', '인성 중수준 집단', '인성 저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인성 고수준 집단은 하위요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159명(32.4%)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 중수준 집단은 하위요인이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인 227명(46.2%)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 저수준 집단은 하위요인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인 105명(21.4%)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동성, 책임감, 성실성, 포용력, 공감, 봉사, 의사소통능력 등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인성을 3가지의 잠재집단 유형으로 분류하였다는 전경희(201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인성을 탐색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개입보다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한다면 아동의 인성 향상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허무녕·성정혜, 2023).

다음으로, 중학교 1학년 시기 문제행동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규칙위반, 공격행동을 축으로 최적의 모형은 4개의 프로파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잠재집단은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 ‘내재화 우세 집단’, ‘외현화 우세 집단’,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은 5가지의 하위요인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인 388명(79.0%)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우세 집단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42명(8.6%)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우세 집단은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40명(8.1%)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은 5가지의 하위요인이 모두 다른 잠재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인 21명(4.3%)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과 우울, 위축, 신체증상 등의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우 내재화 우세형 집단으로,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우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문제행동의 유형을 내재화와 외현화로 나눈 오경자와 김영아(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에 따라 내재화 및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 저위험 집단, 모두 높은 경우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하여 4가지의 잠재집단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예방 및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잠재집단 간의 전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인성 잠재집단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시기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 전이 될 확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 문제행동 잠재집단 유형별로 전이될 확률은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54.3%), 외현화 우세 집단(18.1%), 내재화 우세 집단(12.4%),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5.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는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81.9%), 내재화 우세 집단(9.3%), 외현화 우세 집단(6.6%),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2.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성 고수준 집단에서는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91.2%), 내재화 우세

집단(5.0%), 외현화 우세 집단(3.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는 절반 정도의 확률로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다른 인성 잠재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인성과 중학생의 문제행동 간 잠재전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Klimstra와 Akse, Hale 외(2010)의 연구에서 아동기의 인성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적 현실로 인해 중학생이 되는 시점부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심리적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나(김미한, 2012),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기의 문제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아동의 인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의 잠재전이를 분석한 결과, 인성 고수준 집단과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는 내재화 우세 집단보다는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양상은 청소년기 이전에 발달한 인성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는 집단의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에 비해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았으며,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는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에 비해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내재화 우세 집단과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기간 동안 또래애착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주요 영향 요인이라고 한 연구결과(강지현, 2014; 이주리, 2008)와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욱 심화된다고 보고한 강경훈과 최수미(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래애착이란 또래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옥정, 1998), 청소년이 속해 있는 또래집단의 행동이나 특성에 쉽게 동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작용함에 따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준범·김수지, 2019). 뿐만 아니라 인성은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믿음에 대한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인성 수준이 낮다는 것은 자기존중감 및 자기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또래 간의 관계에서 애정을 요구하게 되고 밀착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게 되지만, 또래에

착이 높아질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이 심화되는 등의 내재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또래애착은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이행될 확률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반면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인성 수준에 따라 또래애착이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함으로써 문제행동의 예방적 측면에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래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아동 및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또래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친구들이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또래애착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 청소년기 문제행동 집단으로의 전이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내재화 우세 집단과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정애와 임성옥(201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기에는 주변으로부터 학업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받게 되고 이는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불러오게 되면서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인성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 더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성 저수준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인성 잠재집단에서 청소년기 문제행동으로의 전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선별적인 개입이 효율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아동의 정직·용기, 책임, 자기존중, 배려·소통, 성실, 예의, 지혜, 자기조절, 정의, 시민성을 중심으로 아동 인성의 유형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의 인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하나의 단편적 특성으로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이론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인성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인성 집단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인성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잠재집단 유형의 전이를 살펴보았다. 아동기의 인성 수준 집단에 따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잠재계층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인성 수준에 따라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적 접근을 차별화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에 착과 학업 스트레스를 영향 요인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또래애착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또래 간의 관계에서 인정의 욕구가 강해지는 청소년기 시기에는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절한 또래애착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인성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간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인성의 잠재그룹 특성들이 기술적 측면의 높고 낮은 점수에 의한 분류라는 점을 보완하고 아동기의 인성과 청소년기의 인성 간의 잠재적 유형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성의 발달은 어느 한 시기에 완전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Caspi & Roberts, 2001)을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성의 잠재집단의 전이 형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발달 시기에 맞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데 더욱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이와 인지적·신체적·정서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준거와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지게 되며,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요구들이 다양해지게 되면서 문제행동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선행연구(서미정, 2008; 이영애·정현희, 2015; 최진아·성지현, 2018)를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기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의 전이에서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기 인성과 청소년기 문제행동 간의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래애착 및 학업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부모변인과 개인변인, 교사 변인 등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 문제행동으로의 전이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기에 서로 다른 문제행동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인성 수준의 향상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인성은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예방에서 나

아가 자기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문정애, 2023)을 토대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필수요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이하므로 교육에 대한 목표가 상위학교에 대한 진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바람직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성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해 나가므로 인성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함께 연계하여 성장 과정에서 인성적 특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또래애착이 무조건적으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또래애착의 향상이라는 일관된 개입을 시도하기보다는 아동의 인성 수준과 또래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은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미성숙으로 자기조절 및 의사결정에서 또래의 인정이라는 보상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는데(Chein, Albert, O'Brien, et al., 2011), 이로 인해 또래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동조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Erwin, 1993).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기주장훈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즉, 또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그 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자기주장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의 구성 요인에서 자기존중감과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 사회적 규칙을 이행하고자 하는 책임감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장훈련은 인성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훈·최수미(2013).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가 외현화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4), 55-85.
- 강정애·임성옥(201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갈등적 친구관계 및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구조관계: 성별 및 학교급별의 다집단 분석. *복지상담교육연구*, 7(1), 197-221.
- 강지현(2014). 후기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의성별, 지각된 학업성적, 부모, 또래의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155-173.

- 교육부(201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0).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세종: 교육부.
- 기쁘다(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과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열의와 학업 무기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2), 215-231.
- 김미림·유예림·황은희·김선용(2019).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대학생 진로성숙도의 전이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1), 173-197.
- 김민주·이동귀(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69-89.
- 김미한(2012). 명상 캠프 프로그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38-348.
- 김선아(2013).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다문화수용성이 내외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5, 59-90.
- 김준범·김수지(2019). 초기 청소년기 위험추구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 또래동조성의 가중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5(2), 83-95.
- 김지윤·이은진·하승혁·홍세희(2021). 취학 전 타인과 상호작용이 초등학생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의 매개효과와 가족 상호작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15(3), 57-80.
- 문정애(2023). 자기주도적 삶을 위한 인문학과 창의적 인성교육 탐색. *인문사회* 21, 14(2), 2553-2566.
- 배민영(2017).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 변화 양상 및 예측요인. *아동교육*, 26(2), 207-223.
- 서미정(2008).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4), 115-138.
- 여성가족부(2022). 2022 청소년 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3). 2023 청소년 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 오경자·김영아(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경림·이희종(2019). 청소년기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끼치는 영향에서 학교유대감,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교사유대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9), 79-104.
- 이경희(2015). 아동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유아기 양육환경의 영향력.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15(1), 1-44.
- 이영애·정현희(2015). 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청소년상담연구*, 23(2), 253-276.
- 이주리(200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초등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아동과 권리*, 12(4), 503-523.

- 장은애·정현희(2019).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교유대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0(1), 313-340.
- 전경희(2019). 교직 적·인성에 대한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5(3), 189-208.
- 최성애·조벽·김슬기(2020). 감사편지쓰기가 아동·청소년 인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20(12), 1-156.
- 최연우(2022). [인성교육]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인성교육, 시민성 함양. 서울교육, <https://webzine-serii.re.kr/2022spring/>
- 최진아·성지현(2018).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의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과 정당화: 유아의 성과 마음이론, 또래배제의 맥락과 놀이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3), 119-138.
- 하미영·정현희(2021). 중학교 신입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한국아동교육학회*, 30(2), 225-245.
- 허무녕·성정혜(2023).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아동의 인성 유형 분류 및 예측요인 검증. *상담심리교육복지*, 10(3), 179-196.
- 현주·임소현·한미영·임현정·손경원·장가람(2014). KEDI 인성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and profiles* (Vol. 30).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 Armsden, G C., & Greeh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uer, D. J., & Curran, P. J. (2003). Distributional assumptions of growth mixture models: implications for overextraction of latent trajectory classes. *Psychological Methods*, 8(3), 338-363.
- Caspi, A., & Roberts, B. W. (2001).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 course: The argument for change and continuity. *Psychological Inquiry*, 12(2), 49-66.
- Chein, J., Albert, D., O'Brien, L., Uckert, K., & Steinberg, L. (2011). Peers increase adolescent risk taking by enhancing activity in the brain's reward circuitry. *Developmental Science*, 14(2), 1-10.
- Erwin, P. (1993).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children*. New York: John Wiley & Sons.
- Geiser, C. (2011). *Datenanalyse mit Mplus*.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Boston, MA.: Springer.

- Hill, K. G., White, H. R., Chung, I. J.,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92-901.
- Klimstra, T. A., Akse, J., Hale III, W. W., Raaijmakers, Q. A., & Meeus, W. H. (2010).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problem behavior symptoms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2), 273-284.
- Kline, R. B. (2010). Promise and pitfall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ifted research. In B. Thompson & R. F. Subotnik (Eds.). *Methodologies for conducting research on giftedness* (pp. 147-16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Peel, D., & McLachlan, G. J. (2000). Robust mixture modelling using the t distribution. *Statistics and Computing, 10*(4), 339-348.
- Perez, N. M., Jennings, W. G., Piquero, A. R., & Baglivio, M. T. (2016).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uicide attempts: The mediating influenc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 1527-1545.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ill, Inc.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van Geelen, S. M., Rydelius, P. A., & Hagquist, C. (2015). Somatic symptoms and psychological concerns in a general adolescent population: Exploring the relevance of DSM-5 somatic symptom disorder.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79*(4), 251-258.

- 논문접수: 4월 8일 / 수정본 접수 5월 17일 / 게재 승인 6월 13일
- 교신저자: 허무녕,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시간강사, hmn@naver.com

Abstract

Transition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and Behavioral Problems: Applying Latent Transition Analysis

Junghye Sung and Moonyung Heo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transition patterns between personality in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behavioral problems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ransition. For this purpose,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s 13th and 14th-year data were analyzed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 First, three latent classes for personality and four latent classes for behavioral problems were found through LPA. Second, the LTA revealed a high probability of transition from the group with a low level of personality to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behavioral problems. Finally, confirming the influence of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stress as influencing factors on transition, both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stress had a significant effect, but different aspects were observed for each latent class.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interventions related to personality and behavioral problems.

Keyword: Personality, Behavioral Problems, Peer Attachment, Academic Stress, Latent Transition Analysis